

1.

(가)와 (나)는 낭비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의도적으로 낭비를 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인간은 활력을 소모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도락의 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도락의 발현은 활력의 소모가 행해지는 방향이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 인간의 소모 경향은 지속적이며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나)는 의도적으로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길브레스는 과학적 관리법을 이용해 벽돌쌓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불필요한 동작을 줄이고 작업을 할 때 도구 따위를 알맞은 위치에 오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가 작업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불필요한 동작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위의 두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의 견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의 이해방식은 (가)에 따르면 인간이 소모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가)에 의하면 인간은 자극에 의해서 자신의 활력을 갖가지 형태로 소모한다. 그리고 이런 습성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므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다)는 인간이 기억을 회상할 때 선택 작용을 함으로써 회상의 어려움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회상하기 위해 현재와 그 시점 사이의 사건들을 생략한다는 견해를 보이는데 이는 소모적 경향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다)를 (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나)에선 과학적 관리법으로 사소한 요소들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의 경우 망각을 하여 기억을 불러 오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이켜 지는 일이 생긴다. 이는 필요한 경우에 기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비효율적인 것이다.